

8대 NCC 경상이익 "급증"

95년 매출 6조2750억원에 경상이익 10.9% 8650억원

94년 하반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석유화학 호황이 95년까지 계속됨에 따라 국내 8대 NCC기업들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8대 NCC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 현황(1995)

(단위: 억원, %)			
구 분	매출액	경상이익	경상이익률
호남석유화학	5,500	700	12.7
LG석유화학	4,500	600	13.3
삼성중합화학	6,800	800	11.8
현대석유화학	6,100	800	13.1
한화중합화학	15,150	850	5.6
유 공	11,900	1,600	13.4
대 립 산 업	8,200	1,100	13.4
대 한 유 화	4,000	400	10.0
합 계	62,750	6,850	10.9

그러나 95년 하반기 중국수출 부진과 가격하락 악재가 발생, 상반기 호황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5년 국내 8대 NCC기업들의 매출액은 6조2750억원, 경상이익은 6850억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93년 3조7720억원, 94년 4조9800억보다 각각 66.4%, 26.0% 증가한 것을 비롯 경상이익을 기준할 때는 93년 308억원, 94년 1698억원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 보면, 호남석유화학은 95년 55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93년 3201억원, 94년 4544억원보다 각각 71.8%, 21.0% 증가한 가운데 경상이익도 94년 284억원보다 146.5% 늘어난 700억원을 기록했다.

LG석유화학은 매출액 4500억원, 경상이익 600억원을 각

각 기록, 93년 매출액 2808억원, 경상이익 655억원 적자, 94년 매출액 3850억원, 경상이익 74억을 훨씬 초과했다.

이와같은 석유화학 호황을 바탕으로 정밀화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LG화학은 매출액 3조3500억원, 경상이익 1550억원으로 정밀화학 등 고부가화전략이 적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중합화학은 95년 6800억원의 매출액을 올려 93년 3919억원, 94년 5099억원에 비해 각각 73.5%, 33.4% 증가한 가운데 경상이익 면에서도 93년 935억원, 94년 183억원 적자에서 95년 800억원의 흑자률이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석유화학 역시 90년 신규참여 이후 적자에 시달려오다 95년 6100억원의 매출액과 80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려 93년 593억원 적자 탈출은 물론 94년 5억원 흑자운명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중합화학은 1조5150억원의 매출액 가운데 85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려, 94년 1216억원 매출액 및 375억원의 경상이익을 상당폭 앞질렀다.

법정관리에 들어있는 대한유화도 4600억원 매출에 400억원의 경상이익을 기록함으로써 94년에 비해 재무구조가 훨씬 탄탄해졌다.

이밖에 유공은 1조1900억원 매출에 1600억원, 대립산업은 8200억원 매출에 1100억원의 경상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화학저널 1996/2/26>

